

## 본문에서 발견하기

-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_\_\_\_\_
- 그리스도께서 '돌'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할 때,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_\_\_\_\_
-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_\_\_\_\_
-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무엇으로 허셨습니까?  
\_\_\_\_\_
-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 그리스도께서 돌로 하나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_\_\_\_\_
- '한 새 사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_\_\_\_\_
- 하나님과의 화목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소멸된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전하신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_\_\_\_\_
-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킵니까?  
\_\_\_\_\_
-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_\_\_\_\_

## 적용하기

-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나 마음의 벽은 무엇입니까?
- 예수님이 이미 허무신 벽을 내가 다시 쌓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할 관계는 누구입니까?

## 지난 주 말씀묵상 (에베소서 2:11-13)

-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로 '그 때'의 자신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받기 이전을 잊고,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받기 전의 자신을 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타인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놓습니다.
- 바울이 말하는 '그 때'의 이방인은 여섯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으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 멀리. 이 단어 안에 얼마나 깊은 소외와 단절이 담겨 있습니까. 구원으로부터 멀리, 언약으로부터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방인들은 이 '멀리 있음'의 황야에서 살았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었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끝에 서도 아무런 답이 없는 삶, 그것이 '그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 13절에서 바울의 문장이 갑자기 방향을 튼다. "이제는." 이 말은 '전에'와 '이제'의 대조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과 생명의 차이, 절망과 소망의 차이, 단절과 화목의 차이입니다.
- 또한 가까워졌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과의 관계, 생명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워짐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인간의 수련이나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거리를 없앴습니다.
- 이것이 복음이 다른 모든 종교 및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길들은 인간이 신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멀리 있던 자를 당신께서 직접 가까이 이끄셨다고 말합니다.
- "생각하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한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멀리 있던 자였습니다. 그 '멀리 있음'의 자리를 잊지 않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모습을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불러내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였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던 자가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